

# 연극이 맺어준 '아름다운 동행'

지역 연극인 후배들  
시력 잃은 윤광렬 선배와  
10년째 매주 만남 가져  
최근 '오방 최홍중'도 관람



10여년째 매주 토요일 모임을 갖는 김상오·김종진·박윤모·윤광렬·조영철(왼쪽부터).

지난 4월 광주시립극단이 무대에 올린 '오방 최홍중' 공연장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광주 연극계의 큰 어른 윤광렬(69) 전 광주예술회장이었다. 공연이 열린 장소는 윤 전회장이 예전 수시로 드나들던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그가 이번 소극장을 찾은 건 무려 12년만이다. 뇌출혈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그는 오랫동안 극장을 찾지 않았다. 이날 그는 극작가 김창일, 김길수씨 등 연극계 동료, 후배들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고, 기자의 손을 꼭 쥐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12년만의 공연장 외출은 지역 연극인들과의 10년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 가능했다. 윤 전회장은 지역 후배 연극인들과 10년째 매주 토요일 점심 모임을 갖는다. 바쁜 일상에서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매주 만남을 갖는 건 웬만한 정성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여수 증도 등으로 나들이를 갔고, 2008년에는 필리핀 세부로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 윤 전회장의 바깥 나들이는 지난 2005년 박윤모(62)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과 가끔 식사를 하면서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연극 배우 김종진(62)씨와 조영철

(62)씨가 합류했고 2012년 배우 김상오(45)씨가 참여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윤 전회장의 '눈'이 되어주었다. 토요일이면 윤 전회장 집에서 찾아와 그를 차에 태우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는다. 상오씨가 인터넷에서 맛집을 찾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토요일 만남은 이제 약속이 아닌 '습관'이 됐다. 윤 전회장은 시립극단의 이번 작품이 우리 지역 인물을 무대에 올리는데다 김창일씨가 희곡을 집필했다고 해 관심이 갔다. 또 KBC 편성국장 재직 시 오방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기억도 있고 토요일 모임 멤버인 김종진씨가 배우로 직접 출연해 후배들의 관람 권유에 응했다. "그날 소극장에 간 게 꼭 12년만이었어요. 감회가 새로웠죠. 예전에 연극하면서 느꼈던 별별 것들이 다 떠오르더군요. 폼바 타령 등 무대가 많이 궁금하기도 했구요. 아, 이런 장면에서는 구도를 어떻게 잡았을까 상상하고 그랬죠. 집에서 TV드라마를 볼 때도 원샷으로 잡았을까 투샷으로 잡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윤 전회장은 중앙대 연극학과 출신으로 광주 MBC PD를 거쳐 광주연극협회 회장을 맡으며 연극인들과 인연을 맺어왔다. 광주예술회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졌고 후유증으로 실명했다.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매주 한차례 모임을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희 집에서도 정말 놀라요. 후배가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번 MBC 동기를 만나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한 만남이예요." 송정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조영철씨는 "윤 회장이 정신적인 지주"라고 말한다. "세상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선배님께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 상할 때 속 없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풀리죠."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연극'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있어 이야기 샘이 마르지 않는다.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겁고, 무엇보다 공통 화제가 있어서 더욱 좋아요. 연극이라는 공통 분모가 없었으면 이렇게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작품

을 올리려면 몇달 동안 함께 부대끼어야 합니다. 인젠 많고 따뜻한 곳이 연극계죠. 좋은 작품과 교감했을 때 연극배우와 연출가가 접하는 그 희열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연극의 매력은 그것이지요. 연극은 가슴을 울리는 작업입니다. 후배들에게 언제까지나 좋은 선배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윤 전회장은 앞으로는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극장 나들이도 더 자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늦게 모임에 참여한 김상오씨는 말한다. "선배들이 배우로서 본받을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회담을 그렇게 오랜 시간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멀리서 볼 때 항상 젖룩한 모습 있었던 회담님과 매주 만나다 보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바쁜 생활을 핑계로 누군가를 살피고, 배려하는 삶을 잊고 지내는 게 우리 자화상이다. 연극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이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지수 작 '사랑'

## 한평 공간서 맛보는 '눈맛'

20일까지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

대인예술시장 내 한평갤러리가 오는 20일까지 나지수, 배귀영, 범경, 장수아씨(이상 회화)와 김경란, 김동인(이상 설치)씨를 초대해 '눈맛'전을 연다. 올해 한평갤러리 전시기획은 대인예술시장에서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별장 프로젝트 사업단'팀이 맡는다. 나지수씨는 일상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습관적으로 낙서하듯 그리면서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배귀영씨는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맛있지만 결코 맛있지 않은, 즐겁지만 결코 즐겁지 않은, 좋지않은 결코 좋지않은 않은 지금 상황에 질문을 던진다. 범경씨는 나무에 생명의 운기를 부여하고, 장수아씨는 꽃과 줄기를 의인화시켜 우리의 삶과 대비시킨다. 한편 올해 한평갤러리에서는 모두 6차례의 기획전이 열린 예정이다. 한평갤러리에 참여하고 싶은 작가들은 별장프로젝트 사무국으로 문의(062-233-1420)하면 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기다림'

## '한국화 외길' 방의걸의 여백

30일까지 함평 잠월미술관

60여년간 한국화 외길을 걸어온 원로 화가 목정 방의걸(77) 화백이 오는 30일까지 함평 잠월미술관(관장 김광옥)에서 개인전을 연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마친 목정 선생은 제자 김광옥 관장의 초대를 받아 서울 전시에서 선보였던 100여점의 작품 중 20여점을 전시한다. 목정 선생의 작품은 기존 전통 산수와는 다른 매력이 있다. 여백이 돋보이는 흑백 수묵에서는 진함과 연함, 부드러움과 거침이 느껴진다. 목정 선생은 "모든 색을 섞으면 검정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 먹빛은 단순한 한 가지 색이 아니고 모든 색의 화려함을 능가하는 다채로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정 선생은 서양화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지만 흥익대 재학 시절 한국화의 거장 장전 이상범, 윤보 김기창 화백을 만나면서 한국화의 매력에 빠져 전공을 바꾸게 됐다. 이후 전남대 미술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다가 정년퇴임했다. 전시 개막식은 7월 오후 3시다. 문의 070-8872-671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명화 속 성서 에피소드 나카노 교코 '명화의 거짓말' 두번째 이야기



"명화가 건네는 말에 쉽게 속지 마라." '무서운 그림' 시리즈의 저자 나카노 교코 교수의 명화 해설서 '명화의 거짓말'(북폴리오 7권) 두 번째 이야기가 번역, 출간됐다. 수많은 나카노 교코 교수의 저서를 번역해온 미술사가 이연식씨가 번역했다. 그리스 신화를 다룬 명화를 소개한 첫 번째 편에 이어 이번에는 그리스 신화와

함께 서양 문화의 기저를 이루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서를 주제로 한 명화에 초점을 맞췄다. 천지 창조,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담은 구약에서부터 수태고지와 세례자 요한,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최후의 만찬 등을 다룬 신약 이야기를 주제로 한 명화를 훑으며 성서의 주요 에피소드를 흥

미진진하게 소개한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와 영화 'E.T.'의 상관관계,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다빈치의 숨은 견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보내는 장면에서 자신과 후원자들을 타입슬립시킨 보티첼리 등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2주년

##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봉암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후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기간	출발	목적지	시간	일정	요금
6월 13일(금)	출발	무빅2일 기차여행 부산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22:00	광주역 출발 / 광주 송정역 경유	성인(경로) 69,000원~ 소아 65,000원~
			04:30	용궁사 일출/해운대/동백섬/APEC 누리마루/이기대 공원	
			13:30	자갈치시장 관광	
			17:20	부산역 출발	
			22:20	광주역 도착 / 광주 송정역 경유	
6월 20일(금)	출발	무빅2일 기차여행 부석사/선비촌/안동하회마을	23:50	광주역 출발	성인 77,000원~ 경로 75,000원~ 소아 74,000원~
			05:30	풍기역 도착	
			06:30	부석사/소수서림/선비촌 /인동 하회마을 관광	
			21:30	풍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7월 18일(금)	출발	1박3일 기차여행 정동진/울릉도/독도	1일째	광주역 출발	성인 320,000원~ 소아 290,000원~
			20:50	정동진역 자유관광 (일출, 모래시계공원)	
			2일째	독도 관광	
			11:30	독도 관광	
			17:30	울릉도 육로 관광 A코스	
7월 18일(금)	출발	1박3일 기차여행 백담사/월정사/양매목장 지역	1일째	광주역 출발	성인 220,000원~ 소아 200,000원~
			20:50	정동진역 자유관광 (일출, 모래시계공원)	
			2일째	백담사/통일전망대/화진포의 성 관광	
			04:40	월정사/상원사/양매목장/주문진어시장 관광	
			09:00	월정사/상원사/양매목장/주문진어시장 관광	